

몇 년 전 독도주민의 재 거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부처를 상대로 어로작업에 필요한 쪽배 한척을 만들어 달라고 청원을 넣은 일이 있었다. 각 관계기관으로 이첩되어 돌아온 답은 '불가'였다. 결자해지하는 심정으로 국민모금을 하기로 했다. 그러기를 1년, 각계에서 답지한 의미 가득한 성금과 기계후원 등으로 1.3톤의 작지만 큰 배 '국민의 배 독도호'가 만들어졌고 주민에게 기증되었다. 2005년 3월 시마네 현은 역시 주장의 본색을 드러내며 의회에서 매년 2월 22일을 독도의 날(그들이 부르는 이름은 예를 들기에도 신저리가 처진대로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그날 포항부근 양포항에서 '독도호' 진수식을 가졌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2006년 2월부터 원래 주민이던 부부가 독도에 재정착해 그나마 유인도로서 첫 걸음을 떼게 되었다. 그리고 2008년 7월 독도의 현주소를 돌아보면 달라진 내외면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

저들은 시도 때도 없이 억지주장의 망연과 역사왜곡의 버르장머리를 멈추지 않고 있다. 생각해 보건데 일본의 알은 수가 읽히는 한다.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심어 인정받기 위한 정치꾼들의 속셈이라는 추측에 힘이 실린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독도라는 연연한 고유영토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유가 되어야만 강력한 대처라는 등의 말에만 난무하고 시간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호지부지 넘어가 버려 일관성 있게 실행된 정책이 독도관



**불자 세상보기**

편 부 경  
한국시인협회 독도지회장

**독도, 이름보다 고독하다**

런해서 이뤄진 적이 거의 없다고 본다. 처음부터 따르며 계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눈빛 하나 넘보면 그 때마다 월용성을 쫓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더라면, 삼불리 자신들의 정치적 인기몰이를 위해 남의 땅을 집적거려보는 따위의 오만방자함이 오늘까지 이르렀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그러나 늦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적기일 것이다.

크고 폼 나는 것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작고 사소한 듯해도 주민이 재상주하면서 가져온 변화를 답안삼아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긍하는 일

이런 차근차근 길을 짚어가야 할 것이다. 하루 200명에서 400명이었다가 최대 1880명까지 독도에 일일 입도객을 늘렸지만 실상 애국심 가득한 심정으로 어렵사리 찾아가는 독도는 계절이나 기상여건에 따라 접안조차 할 수 없는 날이 많다. 현재 선착장 시설의 반대편에 선착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섬의 좌 안안으로 해안산책로 등을 설치해서 정상까지 오르지는 못하더라도 잠시 머물며 자국의 영토사랑에 진한 발자국을 남기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책

무일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상주인구를 다각 구화 하여 서류상의 행정구역 분류가 아닌 사람 사는 소박한 섬마을의 모습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등재된 주민부터 차례로 상환이 갖춰지기 이전이라도 주거의 자유와 거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만일 일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짚어보라. 보호 구역이라 해도 관련된 여러 기관을 단일화해 어떤 일을 추진하더라도 걸림돌이 없도록 책임부서를 신설하거나 지목해야 한다. 현재 연구기관이 있지만 인원을 더 확충하고 지원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역사발굴 등과 관련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공무원 역시도 전담 부서가 있지만 임기를 채우고 옮겨 갔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독도관련해서 만큼은 지향해야 한다. 이는 사소한 듯하지만 사실상 필요한 임일을 10년 가까이 율령독도를 드러내며 경험에 의해 깨달은 내용이다.

독도는 이름처럼 돌섬이 아니며 고독한 곳이어서도 절대 안 된다. 국민의 단합된 의지가 서려있고 민족성의 상징처럼 우뚝한 백두대간의 뿌리인 것이다. 영토는 지켜질 때 의미와 가치를 가지며 이는 민족적 사명이다 망설일 시간이 없다. 눈치 볼 틈을 갖지도 주지도 말아야 한다. 끝으로 며칠 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에 제안서를 접수했는데 처리기관이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 일본과'로 되어 있었다. 이 시점에 이것은 또 무슨 이야기인가? 아직 독도는 외롭다. 독도 주민도 외롭다.

**社說**

**독도침탈 불교계는 침묵?**

일본의 독도침탈 도발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야말로 '심심풀이' 처럼 해대는 영토침탈 발언과 조치들 앞에서 우리 국민은 거듭거듭 아연실색할 뿐이다.

그런데 또다시 어이없는 일을 당한 불교계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다. 100년 전 일제 강점기는 우리민족 전체가 겪은 수난과 고통이었지만, 그때 불교가 입을 피해도 적지 않다. 그 역사의 흔적이 아직 다 지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토침탈의 도발 언행이 거듭 목과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을 도와주는 꼴이다. 100년 후의 후손들을 생각해 보라. 후손들이 독도문제를 오랜 분쟁의 하나로 인식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하겠는가?

지금의 독도 문제는 과거사가 아니라 미래사관 관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불교계의 침묵은 한 사회의 정신을 이끌고 미래의 가치를 창조해내야 할 종교 본래의 소임에 대한 수수방관에 다름 아니다.

만해 스님은 일제 강점기라는 고난의 현실에서 초인적인 자세를 잃지 않았다. 자유와 평화를 향해 불타오르는 의지를 문학으로 실천운동으로 세상에 울려퍼졌다. 그래서 오늘 날 만해의 정신은 우리 민족의 좌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스승에게 부끄럽지 않은 후학이 되려면 누구보다 당당하게 주권 영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국극기도회도 좋고 독도 지키기 100일 기도, 108배 정진 등 불교계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동원해 나라 땅 지키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여름휴가 '놀이' 보다 '보람' 을**

이제 본격적인 여름휴가에 돌입했다. 우리 국민에게는 잠으로 길고 긴 봄이었다. 그런 만큼 힘겹게 초복 이전의 더위를 감당해야 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름 값을 따라 줄줄이 오르는 물가를, 그리 인상과 반 토막 나는 펀드들. 연일 이어지는 각종 시위와 사건 소식들...

지금 우리 사회는 진정으로 휴식을 요구하고 있다. 들끓는 욕망의 휴식 말이다. 고부가 시대를 이겨내는 지혜, 각자 분출해 내는 욕구를 통합하는 지혜, 개인주의와 금권만능을 극복하고 대화합의 사회를 형성해내는 지혜가 절실하다.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바로 쉼에서 온다. 온갖 욕심을 쉬고 들끓는 번민을 쉬지 않으면 청정한 지혜를 구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수행이란 하고자 하는 마음마저 버려야 하는 것이니, 진정한 쉼을 추구하는 마음마저 버릴 만큼의 경지를 터득할 수 있는 불자가 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화두를 들어야 한다. 보람으로 회향될 수 있는 일에 온 마음을 집중해 보자. 가장 좋은 것이 봉사활동이다. 나보다 힘겨운 사람이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다. 그들을 위해 온 마음을 바쳐 나를 먼저 보자. 거기서 들끓던 욕망은 잠들 것이고 불안은 사라져 새로운 힘이 솟을 것이다.

놀이 위한 휴식이 아니라 살기 위한 휴식을 갖는 지혜, 제대로 쉬는 지혜가 필요하다. 올 여름 휴가는 제대로 된 쉼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달인 마음에 민음을**

"선생님, 자랑할 게 있는데요."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음성엔 갑자기 목이 멎 것 같다. 출소한 20대의 범우였다. 그동안 힘든 일들이 겹치고 있었다. 그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며 한숨을 쉬곤 했었다. 그래서인지 자랑할 만한 일이 있다는 소리가 왜 이렇게 반갑게 들리는지 모른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20대의 그는 가족과 연락을 안 한 지 이미 오래, 10대 때부터 소위 말하는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몇 년 전 불교봉사자들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마음을 굳게 닫고 있었다. 종이에 무엇을 써보라고 하니 "전 글 쓸 줄 모릅니다"하며 반항에 찬 눈빛이었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그 후 매사에 그런 식이었다. 도대체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점차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어느 날부터는 만나면 굳어있던 얼굴에 반기운 웃음이 피어났다. <반아심경>도 가진해서 외우고 속제도 열심히 써 왔다. 우리가 가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놓고 한 달 내내 기다린다는 말도 하였다. 점차 마음을 열고 자신의 가슴에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다. 지금까지 세상에는 이기적인 사람만 사는 줄 알았다고 했다. 항상 자기 먼저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앞세워야만 옳은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진실하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

**베푸는 마음 주셔서 감사해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⑦3 조폭 범우의 아름다운 보시**

는 줄을 풀었다고, 자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고 싶다고 하였다. 그의 얼어붙었던 가슴에 조금씩 신뢰와 사랑이 싹트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다.

**사는 게 힘드네요**

그의 가장 큰 문제는 그대로 두면 출소해서 20대 중반의 나이에 또 같은 생활을 반복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돌아갈 가정도 없고 다른 일을 해 본 경험도 없고, 우리가 너무 걱정을 하니 오래 알고 지내는 사형수 불자 중 한 사람이 그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겠다고 했다. 사정을 듣고 보니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바로 예전 젊은 시절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그 길을 계속가면 나중에는 자기처럼 될 것 같아 걱

정된다고 하였다. 그가 써준 감동적인 편지를 범우에게 읽어 주었다. 효과는 대단했다. 직접 같은 길을 걸어 본 사람의 살아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 범우는 고민을 거듭하더니 드디어 새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나가서 돈 벌면 꼭 교도소봉사를 도와드리고 싶다는 말도 반복하였다.

그러나 출소 후의 생활은 무척이나 힘들었다. 일단 간신히 예전 일에서는 벗어났으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었다. 갖은 일들을 하면서 힘겹게 버텨오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에서 택시기사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돈 많이 벌려고 24시간 일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 12시간 교대로 합니다." 그는 가끔 전화로 소식을 전하였다. 지난번처럼 "선생님, 정말 사는 게 힘이 드네요"하며 전화를 할 때는 아, 엄마에게 해야 할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더욱 가슴이 아팠다.

**저도 불자예요**

오늘은 자랑할 일이 있더니 얼마나 반갑고 이쁘지, 그러면서도 그의 힘든 상황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려고 한다. 아주머니 손님에게 택시비를 안 받았다는 것이다. 00사참까지 간다고 하여 태우고 가면서 대화를 했다. 알고 보니 형편은 어려운데 큰일이 생겨 집에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다. 그래서 '저도 불자예요' 하면서 택시비를 안 받았다는 것이었다. 아주머니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며 힘없이 내렸다.

"만 육천 원인데 안 받았어요" 하는 음성엔 자기도 눈글을 도와주었다는 기쁨과 힘이 가득 실려 있다. "그래, 참 잘 했다. 정말 잘 했네. 그런데 그대도 괜찮니? 요즘 수입도 적을 텐데, 너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네에"하는 대답이 흐르다. "어떻게 잘 먹겠나. 택시하려면 시간 맞추어 먹기가 힘들잖아. 너무 돈 아끼려고 하지 말고 식사는 꼭 챙겨야 돼. 제발 건강 좀 생각해라."

자기도 힘들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다니, 예전의 그였다면 어렵도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가 받지 않은 그 택시비는 바로 부처님 전에 올린 보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얼었던 그의 마음에 피어난 불성의 빛은 돈으로 따질 수 없을 것이다. 부처님, 그에게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베푸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디 그를 지켜주시고 훌륭한 불자로 거듭나도록 보살의 마음 꽃을 활짝 피워주소서. **황수경(동국대 석학) 강사**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해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정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진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르라는 중수사상!"

**12품 팔상탐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중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탐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계의 상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탐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탐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탐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중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나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당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 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현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